

# 광주·전남 폐광산 71곳 오염 방치

## 고흥 등 전남 4곳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인근 주민·농산물 카드뮴 등 악영향

토양·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폐 금속광산(석탄광산 제외)이 광주·전남지역에만 71개소(광주 4개소·전남 67개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문을 닫은 전국의 휴·폐업 금속광산 936개소의 7.6%에 달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일부 폐 금속광산에 수천~수만㎡의 폐석이 쌓여 있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농작물오염을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지역 폐 금속광산 주변 지역 주민에게서 혈중 카드뮴이나 소변내 비소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폐 금속광산 환경오염 실태 1차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1차 조사에는 전남지역 폐 금속광산 4군데를 비롯, 전국 100군데 폐 금속광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인 전남지역 4군데 폐 금속광산은 모두 중금속 오염 기준치를 초과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폐 금속광산 중 고흡균 흥신광산에 5만2천㎡의 구리와 비스무스 폐석이 방치된 것을 비롯, ▲곡성군 곡성광산 1만6천㎡ ▲여수시 봉황광산 3천400㎡ ▲영암군 은적광산 1

만800㎡의 폐석이 쌓여 있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전남지역 폐 금속광산 4군데를 모두 향후 복원이 필요한 2등급 지역으로 분류했다.

환경부 조사결과 폐 금속광산 토양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아연→비스→카드뮴→납→니켈→구리→수은 순이었는데 비소의 경우는 곡성군 곡성광산에서 기준치의 1천353배인 8.12g/kg이, 아연은 경북 안동광산에서 기준치의 60배인 17.93g/kg이 검출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심각한 토양과 수질 오염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나 농산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1차 조사 대상 광산 주변 2km 안에는 7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토양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39%는 논이나 밭에서

발견됐다. 조사 대상 광산 100개 중 94곳의 주변 농경지는 폐광산 지역에서 흘러나온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전남지역 모광산 등 전국 폐광산 9곳의 주민 1천778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2%인 36명의 카드뮴과 비소 비중이 WHO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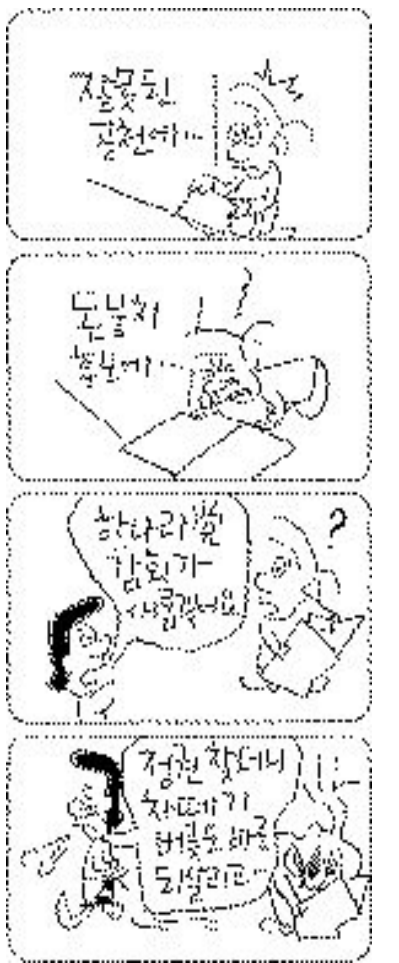
특히 일부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재배되는 배추, 옥수수, 고구마, 콩 등의 농작물에서 납과 카드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지자체가 이 농산물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등로금 인하 촉구 가두행진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대학생 500여명은 25일 '등로금 인하'를 요구하며 각 학교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광주·전남등로금네트워크'는 이날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등로금 반값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나원침 (7467) 김장동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 한국 노총 실무자 소환 조사

###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의 시범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가 한국노총 일부 간부들에 의해 횡령됐다는 의혹(본보 19·20일자 7면)과 관련,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 훈련을 위해 지원된 '노사공동훈련 시범사업' 비용 일부가 사업자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일부 전·현직 간부 등에 의해 유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과 2007년 사업 중 우선 2006년도의 사업비 집행 내용 등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담당 실무자를 차례로 불러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사용처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당시 위탁교육을 맡았던 교육기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7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곡성서 주택 화재 잠자던 70대 숨져

25일 새벽 2시41분께 곡성군 옥과면 수리 1구 심모(여·75)씨의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심씨가 연기에 질식사해 숨졌다.

불은 주택 내부 5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독거노인인 심씨가 제때 몸을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억지 러브샷 성추행 해당"

상대방과 억지로 '러브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형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장조 혐의로 기소된 A(48.건설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97년부터 전남의 한 골프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 골프장 회장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2005년 8월10일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28·여)씨에게 3만원을 주면서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내가 여기 부회장이야, 마셔도 괜찮다"라며 골프장 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불에 열곡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 C(28·여)에게도 폭탄주를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회사 잘리고 싶니"라고 말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D씨와 서로 목을 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러브샷을 하도록 시켰다.

/연합뉴스

## 전남 중1 일제고사 대도시와 비교해 보니 영·수 2~3점 낮고 과학은 1~2점 높아

전남의 중학교 1학년 학력이 전국 수준에 비해 영어 수학은 2~3점 낮았으나 과학과목은 오히려 1~2점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우려했던 도·농간 학력격차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중학교 1학년 전국연합집단평가'에서 전남 학생들의 평

군 점수가 81.0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국어 85점 ▲영어 80점 ▲수학 80점 ▲사회 82점 ▲과학 78점 등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과 비교해 영어와 수학은 2~3점 정도 떨어진 반면, 과학과목은 1~2점 정도 더 높게, 국어와 사회과목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 시지역(목포, 여수, 순천)은 ▲국어 86점 ▲영어 84점 ▲수학 82점 ▲사회 83점 ▲과학 79점, 평균 82.8점으로 전남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도권 시는 평균 83.4점, 영남권 시 82.0점으로 전남권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영어와 수학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사교육 정도에 따른 학력차이를 실감케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통해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지도방법을 다양화 해 교육격차를 더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정씨 왜곡된 여성관이 부른 참극"

### '안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혜진(11)·우예슬(9)양 피살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피의자 정모(39)씨의 왜곡된 여성관과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자괴감이 끔찍한 범행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부모 이혼으로 계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마음에 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한 후 여자에 대한 미시와 타인에 대한 증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계모 밑에서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서 살았고 지금까지 3명의 여성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하다 이들에게 실연을 당한 뒤부터 여자에 대한 경멸감이 생겼다"고 진술했다고 박 서장은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씨가 지난해 12월25일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로 골목길에서 만난 두 어린이가 모뎀감을 주는 눈빛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제로 끌고가 성추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초저녁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어린이를 잡거나 데려갈 수 있었는지와 다가구주택에서 1시간 동안이나 이웃에게 들리지 않고 성추행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 교수 연구실 절도 대학생 '쇠괴랑'

○영암경찰은 25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교수 연구실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25)씨를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영암의 모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7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김씨는 또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P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훔친 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 운행한 혐의도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영암 삼호지구대는 112 순찰 도중 학교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번호판이 수상한 것을 발견하고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를 휴대용 PDA로 조회한 결과 도난차량인 것을 확인, 김씨를 검거해 절도 사실까지 밝혀낸 것.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가 37번길 2  
대표전화 (062) 234-3222

**입원** (30일) - 329,000  
**입원** (30일) - 329,000  
**입원** (30일) - 369,000  
**입원** (30일) - 399,000  
**입원** (30일) - 529,000  
**입원** (30일) - 569,000

**투어트레블 기획 특가!!**

**대한항공** **문화관광** **광주광역시**

**529,000**  
**419,000**  
**349,000**